

##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이정민·우성휘·이명기·박혜진

### 요 약

####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약 53%, 도시민의 약 55%가 공감

-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도시민의 경우 2011년의 73.1%, 2015년의 60.9%보다 하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의 64%가 '가치가 많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농업·농촌의 주요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직불제 단가가 인상되는 노지채소·과수 재배 농가의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도시민 중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56%로 2013년보다 32%p 증가함.

#### 도시민의 35%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으며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개선

- 도시민 응답자의 35%는 향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를 선택함.
-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주거환경', '이웃환경', '보건의료 환경' 만족도가 개선됨. 한편 농업 경영의 주된 위협요인으로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올해 농식품 주요 이슈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선택

- 올해 농식품 분야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 도시민은 '가축 질병'을 선택
- 향후 주요 과제로 농업인은 '자연재해'와 '농민수당'을,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선택

## 01

##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 1.1. 농업·농촌의 중요성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약 53%, 도시민의 약 55%가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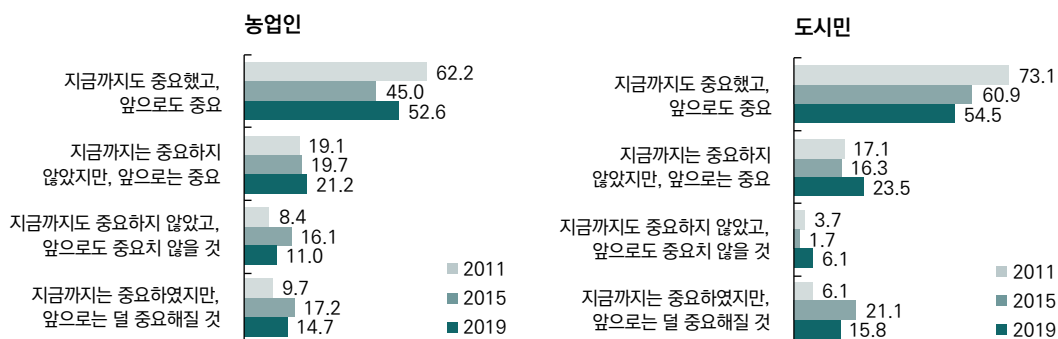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52.6%와 도시민의 54.5%를 차지함. 그 비중은 도시민의 경우 2011년에 73.1%에서 2015년 60.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인식은 농업인이 21.2%, 도시민 23.5%임. 이러한 인식은 농업인의 경우 2011년에 19.1%에서 21.2%로 증가하였고, 도시민의 경우 2011년 17.1%에서 23.5%로 크게 증가하였음.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는 인식 비율은 농업인 73.8%, 도시민 78.0%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임.

-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에 대해 동감하는 비율은 2011년 농업인의 81.3%, 도시민의 90.2%보다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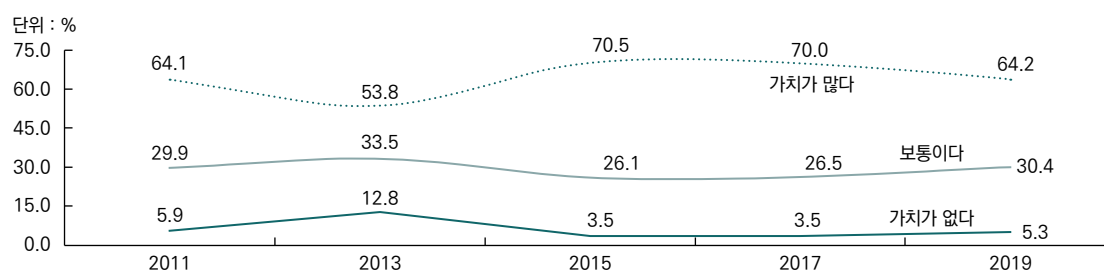
##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높다는 인식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도시민은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는 답변이 64.2%이고, ‘가치가 없다’(‘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7년의 70.0%에서 2019년 64.2%로 5.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7년 26.5%에서 2019년 30.4%로 3.9%p 증가함.

〈그림 2〉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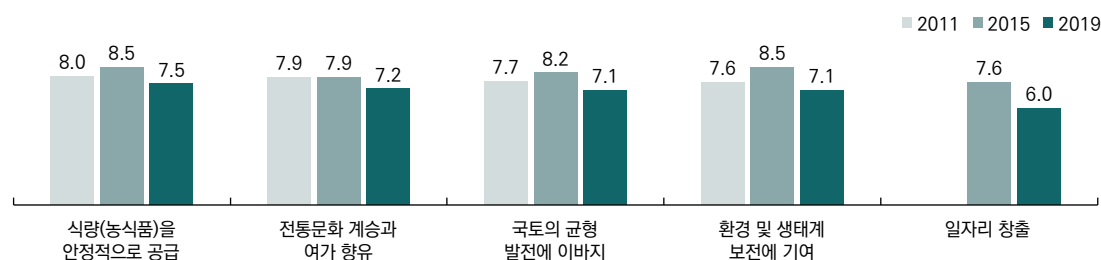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이며, ‘가치가 없다’는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7.5점/10점 만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7.2점)’,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7.1점)’ 등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2011년 이후 7점 내외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3〉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주 1)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 2011년 및 2015년은 5점 척도 조사결과를 환산하였으며, 2019년은 10점 척도로 조사됨.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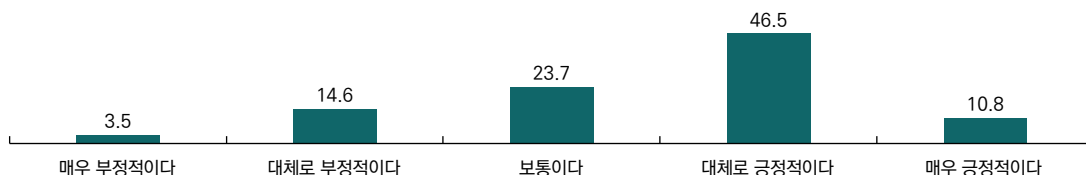
### 1.3.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업인의 57%가 긍정적으로 반응, 노지채소와 과수농가의 긍정 비율 높아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10.8%가 ‘매우 긍정’, 46.5%가 ‘대체로 긍정’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7.3%가 긍정적인 개편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매우 부정적’과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은 각각 3.5%와 14.6%였으며, ‘보통이다’는 23.7%로 조사됨.
- 직불제 단가영향을 받은 노지채소 농가에서 긍정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 및 특작 농가도 각각 64.6%와 60.4%의 긍정 비율을 보임. 수도작 농가의 긍정 비율은 41.8%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그림 4〉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

개도국 지위 전환 보완대책으로 필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44.7%)’를, 도 시민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37.9%)’를 우선 선택함.

〈표 1〉 품목별 농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이다(①)	대체로 부정적이다(②)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③)	매우 긍정적이다(④)	③+④	계
수도작	380	6.8	22.1	28.9	27.6	33.7	8.2	41.8	100
노지채소	187	2.7	8.6	11.2	19.8	58.8	9.6	68.4	100
과수	356	0.6	9.8	10.4	24.7	50.3	14.3	64.6	100
특작	192	3.6	11.5	15.1	24.0	47.9	12.5	60.4	100
시설원예	176	2.8	17.6	20.5	19.3	48.9	10.8	59.7	100
축산	131	5.3	16.8	22.1	19.1	50.4	8.4	58.8	100

주: 기타와 무응답은 제외됨.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참고 내용〉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

공익형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	관련 예산
1.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소농직불금)	2019년 1.4조 원 →
2. 쌀·밭작물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2020년 2.4조 원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NABO 브리핑 제74호;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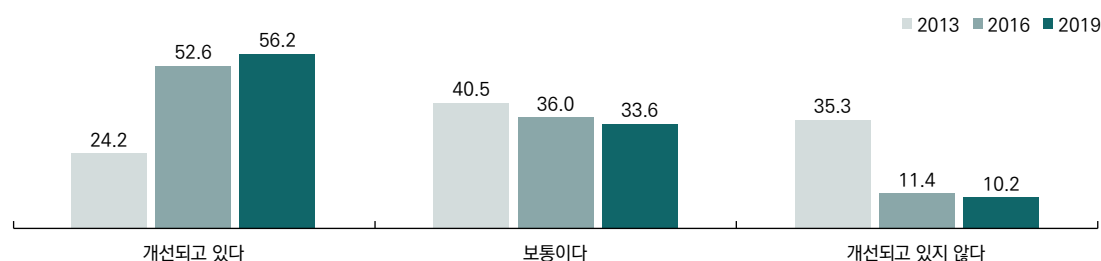
## 1.4.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 도시민은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민의 56.2%가 '개선되고 있다'('매우 개선'과 '조금 개선')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전혀 개선되지 않음'과 '별로 개선되지 않음')는 비율은 10.2%로 나타나 도시민은 식품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민은 2013년의 24.2%에서 2019년 56.2%로 32.0%p 크게 증가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응답 비율은 동 기간 25.1%p 감소함. 따라서 도시민들은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5〉 도시민이 생각하는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



주 1)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 '개선되고 있다'는 '매우 개선되고 있다'와 '조금 개선되고 있다'의 합이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의 합임.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1.5. 시사점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과반수 이상 공감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식량의 안정적 공급,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 공간 제공, 국토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농업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통해 기존 직불제의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의 국내산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사후 관리 및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02

##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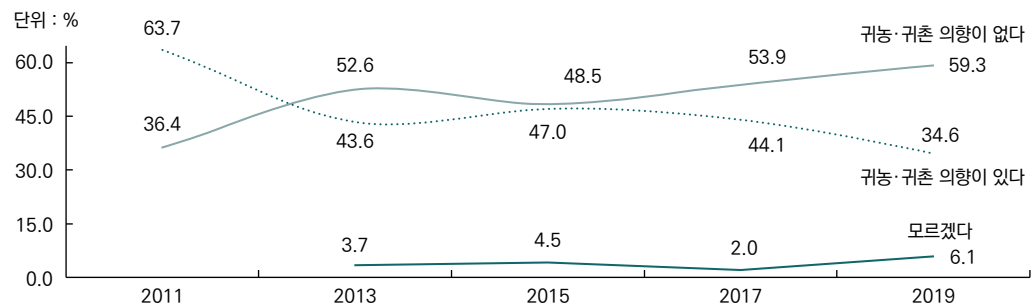
## 2.1.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도시민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중은 34.6%로 감소 추세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귀농·귀촌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6%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3%는 '귀농·귀촌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 비율은 2011년의 63.7%에서 2019년 34.6%로 29.1%p 감소했지만, '귀농·귀촌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011년의 36.4%에서 2019년 59.3%로 22.9%p 증가한 점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연도별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46%로 가장 많아

귀농·귀촌 의향자들은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46%를 차지하였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1.4%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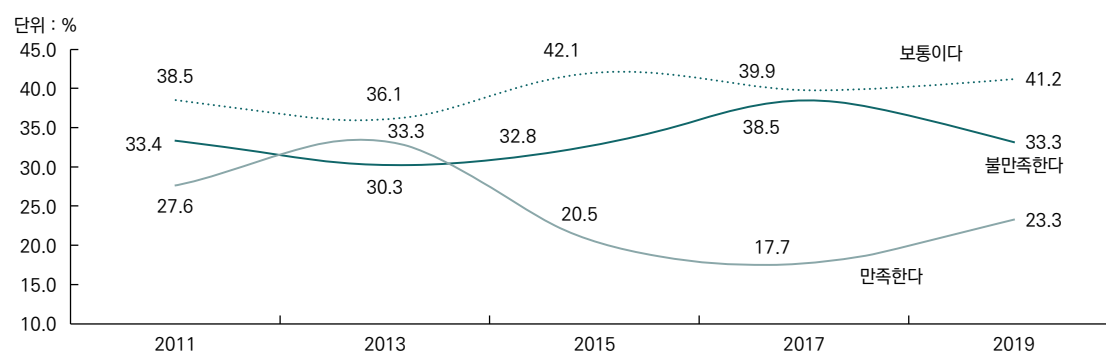
- 귀농·귀촌 의향자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를 선택한 비율은 2011년(61.5%)보다 감소(15.5%p)한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와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응답 비율은 동 기간에 소폭 상승하였음. 이는 자연(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2. 농업인 직업 만족도

###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에 비해 개선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가 23.3%로 2017년보다 5.6%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비율은 33.3%로 2017년 대비 5.2%p 감소함.

〈그림 7〉 연도별 농업인 직업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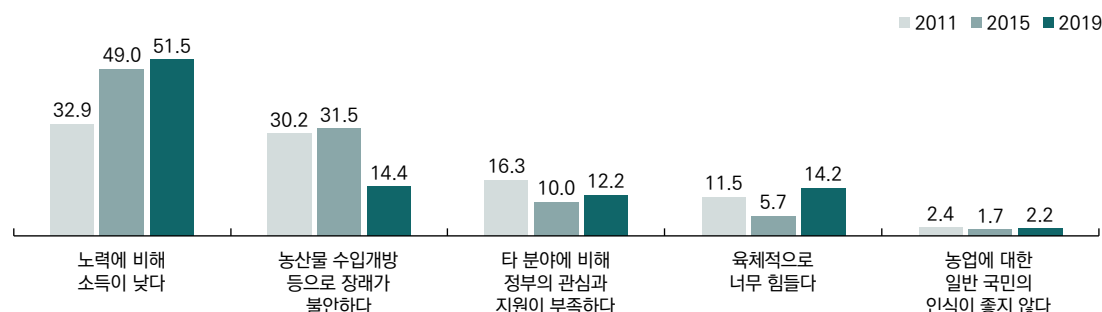
주: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 '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51.5%)'라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4.4%)'가 지적됨.

-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1년의 32.9%에서 2019년 51.5%로 18.6%p 증가한 점에서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수준이 낮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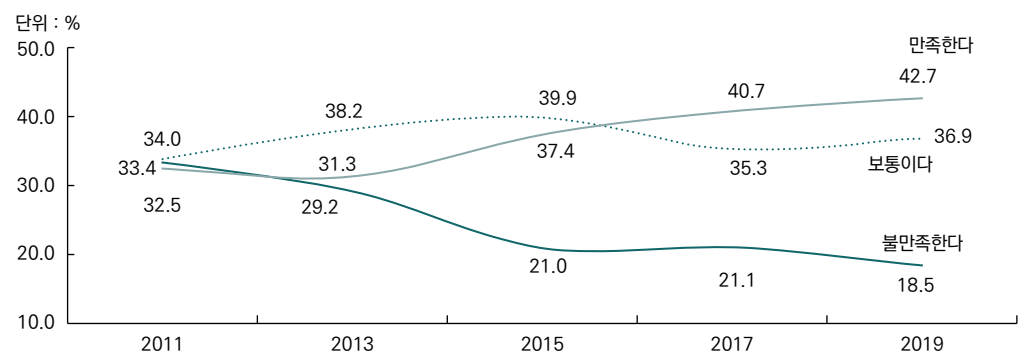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2.3.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경영 위협요인

### 2019년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42.7% 수준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만족한다(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가 42.7%로 2012년보다 10.2%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는 18.5%로 동 기간 동안 14.9%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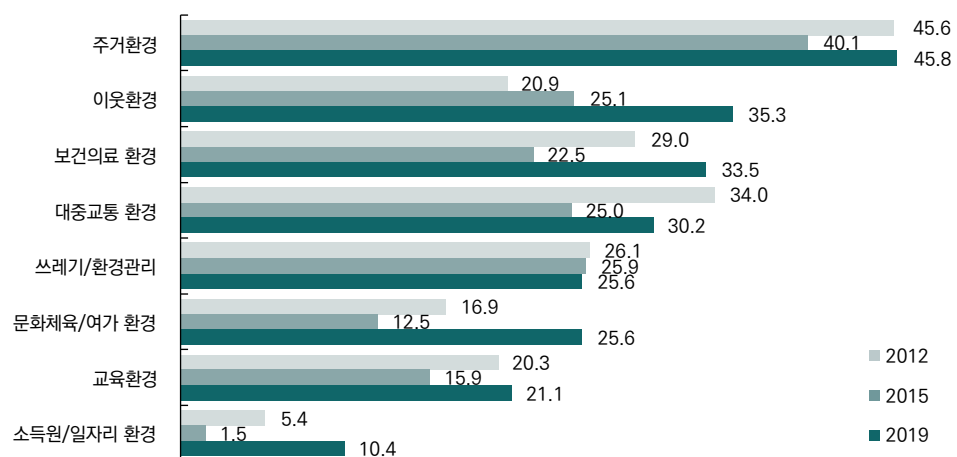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농촌생활 만족도 변화(%)



주: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 '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는 '주거환경' 분야가 45.8%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환경', '보건의료 환경', '문화체육/여가환경' 분야 만족도가 2012년 대비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환경' 분야 만족도는 감소하였음.

〈그림 10〉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 변화(%)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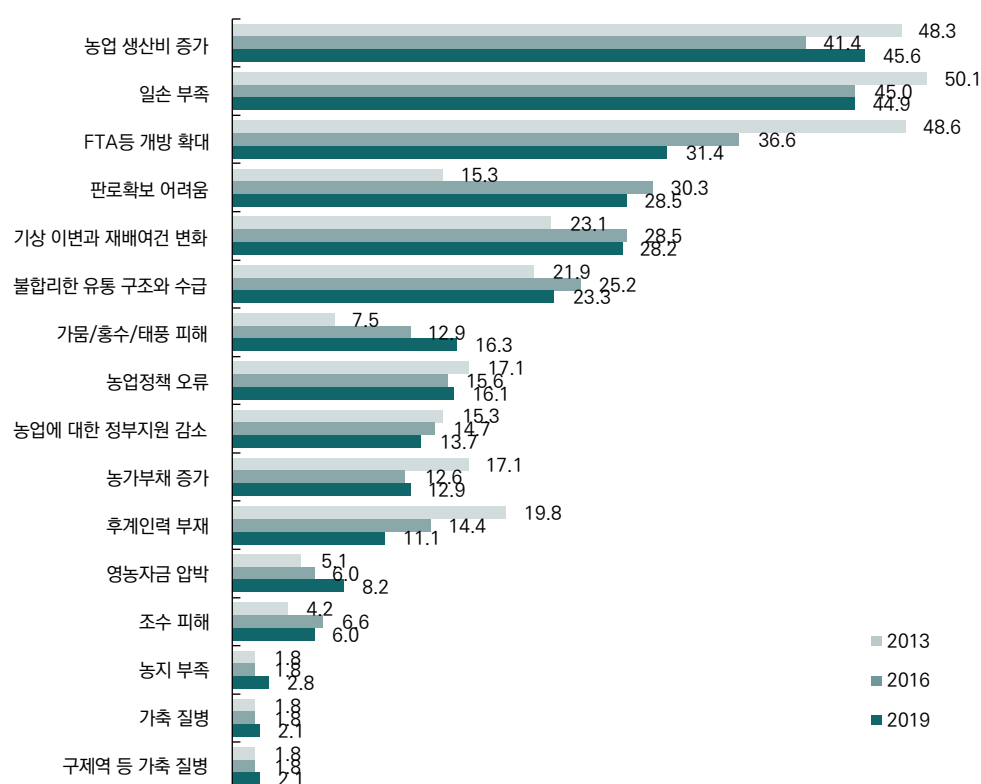


## 농업경영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선택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를 45.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일손 부족’을 44.9%로 높게 지적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는 농업경영의 주 위협요인으로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나, ‘FTA 등 개방 확대’는 2013년보다 17.2%p 감소하여 시장 개방 등의 외부 충격보다 생산비(경영비) 증가, 노동력 부족 등의 시장 내 문제점이 주로 지적됨.

〈그림 11〉 농업경영의 주 위협 요인(복수 응답, %)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2.4. 시사점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도시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들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층 유입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 문화·여가, 휴양,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03

## 농업·농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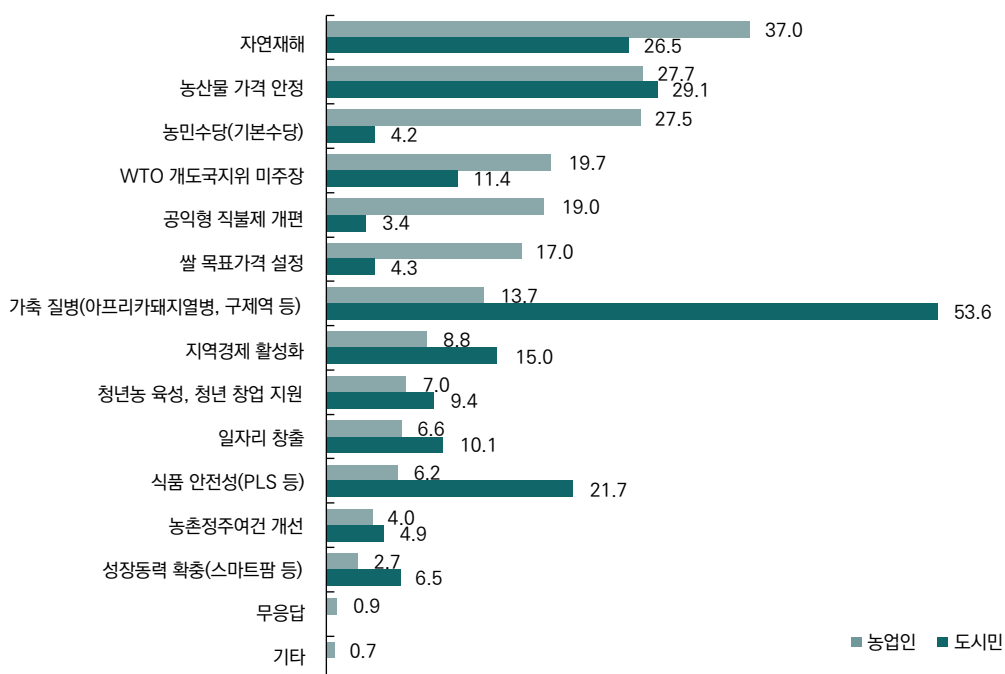
##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2019년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는 농업인은 자연재해, 도시민은 가축 질병을 지적

농업인은 올해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로 ‘자연재해(37.0%)’,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27.5%)’을 선택한 반면, 도시민은 ‘가축 질병(53.6%)’,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26.5%)’ 순으로 지적하고 있음.

-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도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식품 안전성(21.7%)’, ‘지역경제 활성화(15.0%)’ 등이 있음.

〈그림 12〉 올해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중복응답, %)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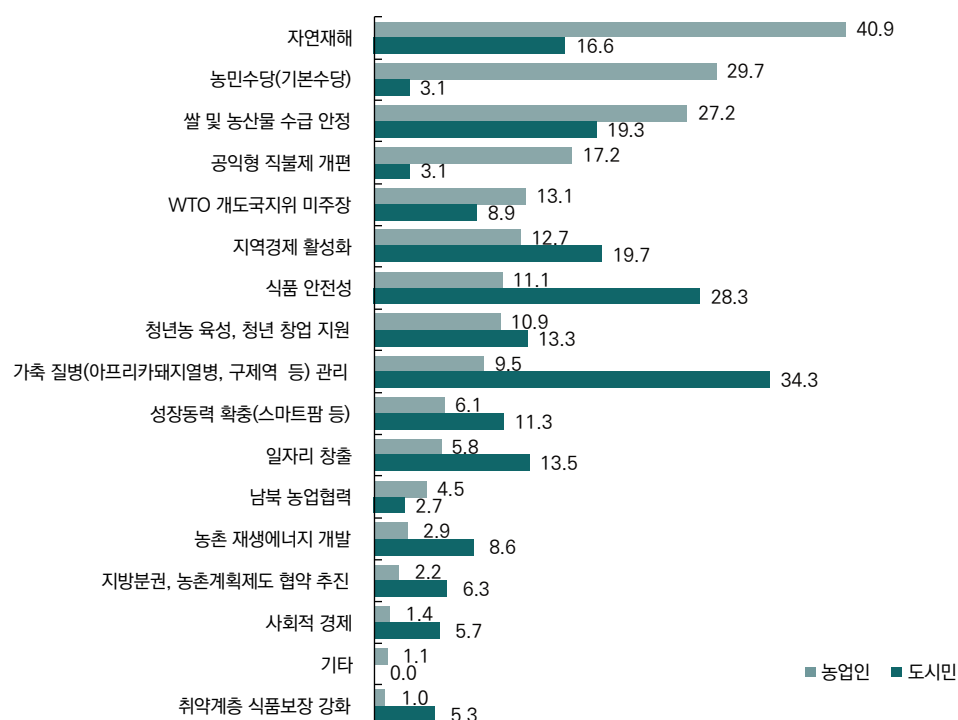
## 3.2. 향후 농식품 분야 주요 과제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자연재해 대비와 가축 질병 관리를 선택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자연재해(40.9%)', '농민수당(29.7%)'을 답변하였으며,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34.3%)', '식품 안전성(28.3%)'을 지적함.

- 이외 농업인은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27.2%)', '공익형 직불제 개편(17.2%)'을 주요 이슈로 답변하였으며, 도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19.7%)',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19.3%)' 순으로 답변함.

〈그림 13〉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중복응답, %)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3.3. 시사점

올해 주요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함. 이는 병충해 발생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도시민은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안정', '식품 안전성' 등을 선택해 도시민 이슈는 안전한 농식품으로 판단됨.

향후 5년 내 주요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 '농민수당',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들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부 록 ]

###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농업인 1,5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sup>1)</sup>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 고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 바람.

〈표 2〉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521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표본 추출방법	전국 읍면 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참고문헌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NABO 브리핑 제74호. 2019. 11. 25.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11.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중심 농정개혁' 추진 동력 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2019 국민의식조사.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내 용 문 의	이정민 전문연구원	061-820-2123	fantom99@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

##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9.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